

동구 합창단 세계대회 참가 놓고 '설왕설래'

오는 10월 스페인 10박11일 일정...신청비 등 추경 3천만원 '과하다' vs '위상 강화'... "홈피 관리 등 내실부터" 지적도

광주 동구가 '동구 합창단'의 세계합창대회 참가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문화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구청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소식 전달 및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내실 강화'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동구의회 제308회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동구 합창단 단복비 명목 2천만원, 세계합창대회 신청비 1

천300만원, 합창대회 여비 1천700만원 등 총 5천만원이 증액됐다.

동구 합창단은 지난 1998년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 문화 창달과 행정 당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창단됐다.

현재 단장·지휘자·반주자·단원 등 총 4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입은 관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구는 매년 합창단의 공연을 위해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 7천744만원, 2023년 9천190만원이 사용됐다.

올해는 당초 4천270만원이 책정됐다가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총 9천270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이번 추경 예산 3천만원은 오는 10월24일~11월1일 스페인 방문 일정에 사용된다.

세부 일정은 10월25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합창대회 'Sing For Gold' 출전 후 칼레아에서 우정·축하 콘서트에 참가한다.

칼레아의 우정·축하 콘서트는 지난해 동구를 찾아 공연을 펼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에 보답하기 위해 참가한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10월27일까지 해당 일정을 소화한 뒤 동구 합창단은 마드리드로 이동, 같은 달 29~31일 '헤타페 폴리포닉' 합창단과

3차례 합동 공연을 연 뒤 귀국한다.

일정에는 동구합창단 42명이 각각 420여만원을 자부담하고 함께하며, 참가비와 경비 일부는 동구가 추경 예산을 통해 부담한다.

이를 두고 "인문·문화·관광 도시를 구정 목표로 두고 있는 동구의 합창단인 만큼 세계대회 참가는 선도적인 행보"라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광주 타 자치구 합창단 어느 곳도 참가하지 않는 세계대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실제 타 자치구 대비 동구가 합창단에 쓰는 예산은 많은 편이다. 최근 3년간

광주 5개 자치구는 매년 평균 합창단에 4천만~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내실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동구청 홈페이지 내 합창단 관련 활동 내역과 자료실은 각각 2022년·2016년에 머물러 있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어왔다.

이에 대해 박현정 동구 의원은 "동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자체 예산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해외로 나가는 게 시가 상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한 혐의로 로블록스의 게임 '그날의 광주' 제작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5·18기념재단, 왜곡·2차 가해 게임 제작자 고발

광주경찰청에 2명...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하 게임을 만든 제작자 등을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와 이를 제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차 가해 게임을 만든 제작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그날의 광주' 게임 구성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을 '시민 폭동'으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또 다른 2차 가해 게임의 경우 제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5·18 모욕 게시물 결국 삭제'라는 글이 게시돼 있어 두 게임 제작자가 동일한 인물로 의심돼 이에 대해 수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인 '로블록스'에서 한 제작자가 1980년 5월 항쟁 당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이는 게임을 개발했다.

하지만 해당 게임에는 '북한군 침투설'이 적용돼 5·18 왜곡 논란이 일었다.

이 게임을 접한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해당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현재 플랫폼에서는 삭제 조치됐지만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희롱이 담긴 게임이 만들어져 2차 가해 우려가 이어졌다. /주성학기자

갈등 빛은 지인 살해하려 한 피의자들 잇따라 재판대에

檢, 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 10년 구형...살인미수·살인예비 3명 재판도

갈등을 겪은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범행을 계획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재판대에 올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화순군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둔기를 휘둘러 육촌 관계인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장작을 들자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자 A씨는 "화가 치밀어 대응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된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7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B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시께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흉기가 부러지면서 B씨의 범행이 멈춰 생명을 부지했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재개된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려 한 피의자들도 잇따라 재판대에 섰다.

지난해 8월5일 광주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온 C(60)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단독(이광현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지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지른 C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C씨에 대해 요청한 치료감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도 이날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D(5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D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쥔 지인들의 집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D씨는 아내와 딸다툼을 하던 중 지인들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인들의 집을 찾아가진 않은 D씨가 살인예비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증거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檢, '학동 참사' 입찰비위 현안에 벌금 1억 구형

직원·한솔기업 대표엔 징역 2년

검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철거 공사업체 선정 입찰비위에 대한 책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현산)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형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법인과 직원 A씨, 한솔기

업대표 B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A씨는 2개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진행했는데, B씨에게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찰에서 탈락한 다윈이앤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솔기업은 참사 현장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이익을 7배의 비율로 나누기로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불법 재하도급을 했다.

검찰은 현산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 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안재영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